

알팔파 펠렛의 가격은 사료용 곡물보다 싸야 한다.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사료·영양학과
교수 **맹 원 재**

양축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팔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팔파의 사료적 가치와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인, 비타민A 그리고 반추위의 발효를 촉진하는 미지인자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팔파는 역시 조사료일뿐 곡물에 그 사료적 가치를 대적할수는 없다. 그런데도 곡물보다도 월등히 더 비싼 알팔파를 수입해야만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도 곡물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알팔파 펠렛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심을 품은 내자신이 모순인지 아니면 수입을 허용하는 자의 깊은 뜻이 숨겨 있는건지 우리네의 머리로는 판가를 하기가 어렵다. 하기가 소맥보다도 더 비싼 소맥피를 도입해 오는 모순이 모순으로 지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사료로서 왕자의 위치에 있는 옥수수 보다도 더비싼 알팔파 펠렛이 버젓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네의 땅에 상륙한 이상 이제 그값을 따지지 말고 그 이용 방법과 사료적 가치를 평가할수 밖에 없다. 물론 알팔파의 수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지적하고 싶지 않으나 가격이 사료용 곡물보다 싸야한다는 것은 지적해야만 되겠다.

알팔파 펠렛은 주로 인공건조 알팔파로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가치도 높다. 그러나 때로는 태양건조 알팔파 펠렛도 제조되지만 이것은 인공건조의 경우보다도 영양가치가 훨씬 낮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다.

소에게 조사료원으로 알팔파를 급여할 경우는 가공하지 않은 건조상태로나 또는 큐브의 형태로 급여하여야 반추위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또 착유우의 경우 유지율을 정상으로 유지할수 있다. 그러나 알팔파 펠렛은 농후사료의 일부가 아닌 조사료원으로 대체 급여할 때는 조사료가 주는 영양가치 이외의 물리적 조절기능을 제공할 수가 없고 젖소의 경우는 유지를 감소등의 장애를 초래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알팔파 펠렛은 농후사료중에 35%까지 혼합해도 사료섭취량, 산유량및

유지율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 (Depeters 등, 1980) 20% 까지 농후사료에 섞어 급여했을때 산유량은 떨어지나 유지율은 크게 증가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Baldwin 등, 1983). 또 최근에 Kirkpatrick등 (1984)은 농후사료의 45%를 알팔파 펠렛으로 대치급여 하여도 산유량은 물론 유성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알팔파 펠렛은 농후사료의 45%까지 대치하여 급여할 수 있다.

알팔파 펠렛의 단백질은 그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공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열처리를 받기 때문에 반추위내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반면 소장에서 소화흡수되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의 요구량이 높은 육성중인 소나 고능력 착유우의 단백질원으로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칼슘과 인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알팔파 펠렛을 사용하는 수준에 따라 이들 무기물의 첨가량을 줄일수 있고 기타 비타민A는 물론 미량무기물 함량과 반추위 발효 조절제로서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건조 알팔파 펠렛은 곡물의 일부를 대치 이용할 수 있고 또 유지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알팔파 펠렛의 곡물 대치수준은 곡물과 기타 사료원료와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곡물보다도 가격이 저렴할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알팔파 펠렛의 사료적 가치가 아무리 월등하다 하더라도 곡물을 능가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알팔파 펠렛은 분쇄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료로서의 반추위 조절기능은 제한되어 있고 오직 농후사료 원료의 일부로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료로서의 알팔파는 고능력우를 위해서 펠렛보다는 큐브형태가 더 바람직하고 지금과 같은 높은 가격에서 수입된다면 전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리고 알팔파펠렛의 수입이 국내의 부존 사료자원의 개발 이용과 산지 초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에 추호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오히려 모든 양축가가 조사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조사료의 증산과 이용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쨌던 알팔파펠렛의 수입은 우리나라 大家畜의 또다른 중요한 계기점을 제공한다고 봐야되며 이 계기점이 식량자급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촉진제 역할을 해야만 된다. 그것은 수입 알팔파의 진가를 깨닫는 양축가들이 더많은 수입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하여 공급하겠다는 방향으로 유도될때 가능해 진다.